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http://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부속기관: 꿀벌유치원 857-8545 /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임 신부 백승준 시몬

보좌 신부 정혁 요셉 (청년부)

전교수녀 강봉목 마티아 (유·초·중·고등부)

윤옥주 율리아 (원장)

이민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최상순 수산나 (유·초등부)

꿀벌유치원 장종수 마리아

요셉어린이집 박화자 글라라

총회장 최석준 마르코 010-5715-0392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모임

| 단체명       | 일시              | 장소    |
|-----------|-----------------|-------|
| 성체분배자회    | 4월 28일(일)교중미사 후 | 성체조배실 |
| 자녀를 위한 기도 | 5월 03일(금) 20:00 | 1교실   |
| 성모성심회     | 5월 04일(토) 17:30 | 강당    |
| 위령봉사회     | 5월 05일(일) 11:40 | 강당    |
| 임원 모임     | 5월 08일(수) 20:00 | 식당    |
| M.E.      | 5월 12일(일) 11:50 | 6교실   |

어버이날 경로행사

- 일시 : 5월 02일(목), 미사 후, 10:40
- 장소 : 강당
- \* 식사와 친교의 시간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시 : 5월 03일(금), 저녁 미사 후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5월 04일(토)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견진성사 교육 및 전신자 신앙 재교육 안내

| 일시   | 제목                 | 강사      |
|------|--------------------|---------|
| 5/03 | 전례와 성사생활로 힘을 얻습니다. | 정혁신부님   |
| 5/10 |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 최수산나수녀님 |

-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 6월 7일(금) 20:00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5월 가정의 달 행사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일미사에 三代가 함께 참석하는 가정에 선물을 선사합니다.
- 조건 : 구로3동성당 교적자(가족 중 1인 이상)
- 선물 : 외식상품권, 신부님과 가족사진 촬영 등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안내

- 묵주기도 : 5/1(수)부터 매일미사 30분전 시작
- 성모의 밤 행사 : 5/30(목) 오후7시30분, 성전

수지계산서

2024. 03

| 수입     |             | 비용     |             |
|--------|-------------|--------|-------------|
| 계정 과목  | 금액          | 계정 과목  | 금액          |
| 봉헌금    | 206,757,150 | 선교비    | 80,843,867  |
| 후원금    | 6,062,930   | 성무활동비  | 21,656,556  |
| 목적헌금   | 12,433,200  | 교육비    | 735,000     |
| 기부금    | 930,125     | 자선찬조비  | 11,513,240  |
| 부속기관수입 | 5,600,000   | 행사비    | 10,421,280  |
| 기타수입   | 12,823,073  | 인건비    | 59,636,380  |
|        |             | 회의비    | 502,700     |
|        |             | 운영비    | 24,468,220  |
|        |             | 세금과공과  | 2,013,629   |
|        |             | 복리후생비  | 2,336,280   |
|        |             | 기타     | 1,303,000   |
|        |             | 운영수지차액 | 29,176,326  |
| 합계     | 244,606,478 | 합계     | 244,606,478 |

알림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미사 5월6일(월) 10:30
- 5월 병자 영성체는 5월10일(금)에 있습니다.

본당 방호원 모집 (계약직)

- 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자격증 우대)
- 서류 :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증명서, 본당 주임신부 확인서
- 접수처 : 본당 사무실
- ※ 서류전형 후 면접 해당자 개별 통보.

다음 주일(5/0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 국수잔치 | 1구역 | 청소 | 6구역 |
|------|-----|----|-----|
|------|-----|----|-----|

우리들의 정성(4월 17일 ~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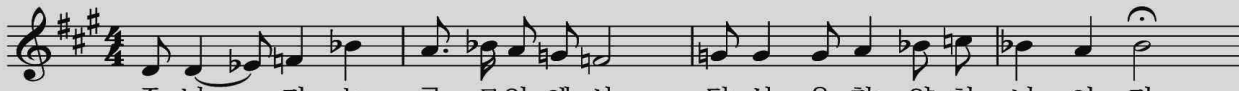
|           |                                      |
|-----------|--------------------------------------|
| 교무금       | 4,140,000원                           |
| 주일헌금      | 4,866,100원                           |
| 성소주일 2차헌금 | 1,858,800원                           |
| 감사헌금      | 한감남30만원 고종환 5만원 신기자10만원 국수잔치16구역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월    | 일   | 해설  | 복사  | 독서      |
|------|-----|-----|-----|---------|
| 4/28 | 이영민 | 오성환 | 도현만 | 안상록 권태희 |
| 5/05 | 신영옥 | 조흥환 | 도현만 | 최웅조 민옥경 |

성가번호 ♪ 입당 : 35 ♪ 예물준비 : 211, 415 ♪ 영성체 : 174, 496 ♪ 파견 : 131

화답송



주님 - 저 는 큰 모임 에서 당신 을 찬 양 하 나 이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88. 브라질 주교들은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의 자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현존의 발견은 우리가 생태적 덕목들“을 키워 나가게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충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 세상 만물과 하느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피조물들을 잘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적합한 고유한 자리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피조물들이 워낙 작아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 V. 보편적 친교

89.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주인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룬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90. 이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한 수준에 두는 것도,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빼앗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구와 협력하고 지구의 취약함을 돌보는 소명을 빼앗는 지구의 신격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결국 새로운 치우친 생각을 낳아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때때로 인간의 그 어떤 뛰어남도 부인하려는 강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리는 존엄을 수호하는 것보다 다른 생물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욱 열정을 쏟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을 무책임하게 다루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엄청난 불평등에 분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떤 이들이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참한 곤경에 빠져 거기에서 헤어 나올 방법이 없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주체할 수 없어 하며, 허영에 빠져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면 지구를 파괴하는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이 자신을 마치 더 많은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여전히 묵인되고 있는 것입니다.